

환경담론연구회 결과보고서

조유진¹, 김경은¹, 김지영², 김채미², 박유정¹, 박정현¹, 이태성¹
[¹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 전공, ²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1. 서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행동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인식은 언론 보도, 정치적 담론, 전문가의 발언 등 다양한 사회적 채널을 통해 형성된다(Wilson, 1995). 그러나 기존의 기후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미래 예측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학적 정보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며,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담론연구회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여, 대중 인식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회는 텍스트마이닝, 비판적 담론분석(CDA),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기반의 질적 사례연구 등 학제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경, 에너지, 언론, 예술, 노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형성되는 기후·환경 관련 담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미디어가 기후변화 문제를 어떤 틀(frame)로 보도하는지(윤순진, 2016)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담론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학술적 기여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Richardson(2007)의 언론 담론 분석 방법론을 공동 학습하며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본 결과보고서는 환경담론연구회의 활동과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 본문에서는 연구회의 조직 방식과 함께, 연구회 구성원들이 수행한 세부 연구 주제들을 상세히 소개한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한국 언론의 기후과학 재현 방식 분석, 예술 담론의 물질성에 대한 행위자-연결망 이론적 접근, 발전노동자의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에 대한 프레임 분석, 그리고 한국의 개문냉방 관행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 분석 및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적 고찰 등이 포함된다. 제3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술적, 정책적, 그리고 환경담론연구회 차원의 함의를 논하며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본문

1) 환경담론연구회 조직 방식

환경담론연구회는 기후위기와 환경 담론의 학제적 분석을 목표로 조직되었으며, 정기적인 심층 발제와 상호 토론 체계를 통해 연구의 깊이와 시야를 공동으로 확장했다. 연구 기간 동안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구조와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운영 시간 및 장소: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매월 1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 장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오픈플랫폼을 주축으로 활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을 병행하여 연구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 정기 심층 발제 및 상호 토론 체계:

매월 구성원 1인이 자신의 핵심 연구 주제에 대한 발제를 담당했고, 또 다른 구성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심층 토론자로 참여하여 비판적 관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객관화하고, 논리 구조 및 방법론 적용의 정교함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연구 성과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 협력적 연구 설계 및 피드백 문화:

연구 주제 선정, 이론 검토, 방법론 적용 등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원들은 상호 간의 밀착 피드백을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시켰다. 텍스트마이닝, CDA, ANT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환경 담론 연구 분야의 학제적 역량을 공동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 주요활동 일정:

연구회의 주요 발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발제자	토론자
4월 19일	조유진	이태성
5월 24일	김채미	김경은
6월 21일	김지영	김채미
7월 17일	이태성	조유진
8월 23일	박유정	박정현
9월 19일	김경은	김지영
10월 25일	박정현	박유정
11월 12일	숲과나눔 최종보고회 참석	

2) 환경담론연구회 구성원별 연구 주제 소개

(1) 김경은 - CDS 접근법에서 IPCC 담론 분석; 1997~2024년 한국 대중매체 속 기후과학과 기후정치

① 연구 배경

한국 국민 다수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믿고 있음에도(구유나, 2022), 국가적으로 취약한 배출 목표와 낮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Kalinowski, 2021). 다수의 국내 학자들은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행동)의 간극(gap)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기후변화 공론장의 담론 지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논쟁이 서구권에 비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윤순진, 2016; 지명훈, 2015; 홍성철, 2023), 기후변화 보도의 양적 취약성은 물론 다양성 부족 등이 현상적 문제로 지적된다(Broadbent, 2013; Shin, 2023; Yun et al., 2014). 이 연구는 이 같은 한국 미디어의 기후변화 담론 지형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논쟁적 쟁점으로 나아가고자 함. 미디어에 의해 조작된 기후변화 담론을 탐색하고, 사회구조적 개혁 과제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의 담론적 장애물을 규명하는데 목적. 한국 언론에 내재된 지배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해체해 담론 생산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들이 구성한 저널리즘적 현실에 집중.

② 이론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맥락적·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비판적 담론 연구(Critical Discourse Studies, CDS)와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언론의 기후과학 재현 방식을 분석.

CDS는 지식의 구조화된 구성물로서의 담화를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법으로, 실증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분석 방법이 아닌 ‘비판적’ 관점에서 이론적 유사성을 가지며 특정한 종류의 연구 문제를 가진 다양한 접근법들을 말한다(Wodak & Meyer, 2015).

STS에서 핵심적 개념인 ‘경계작업’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비과학, 과학과 정치를 구분하고 과학의 권위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담론적·제도적 실천을 의미(Gieryn, 1983). 경계작업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특정 시기와 장소의 문화적·정치적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 과학자, 정치인, 언론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후과학과 기후정치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본 연구는 CDS의 비판적 관점과 STS의 경계작업 개념을 통합하여 한국 언론의 기후과학 재현 방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분석틀을 적용.

③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선 한국 기성 언론의 기후변화 표현에 초점을 맞춰 1988년부터 2024년까지 37년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개 종합일간지의 IPCC에 대한 보도를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념적 스펙트럼 구분을 따라 열독률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신문을 선정. 각 진영의 열독률 상위 매체인 조선일보(조선), 한겨레(한겨레), 한국일보(한국)를 다룸. 자료 수집은 신문 지면 스크랩 플랫폼 스크랩마스터(www.scrapmaster.co.kr)의 지면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신문 기사 데이터를 수집. 본 연구는 주로 담화의 담론 전략(discourse strategies)과 이념적 입장(ideological positions)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

맥락 분석은 두 가지 축, 즉 비교-동시적(comparative-synchronic) 차원과 역사적-통시적(historical-diachronic) 차원으로 진행. 이는 특정 담론이 어떠한 역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맥락의 변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Carvalho, 2008).

④ 연구 결과

한국 언론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도만큼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역동적인 기후 저널리즘의 전개를 보여줌. 1990년대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개발 저널리즘과 제한적 국내화 수준에 따라 IPCC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7년 이후 기후과학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자 과학자들에 의한 담론 주도 흐름이 나타남. 이는 경제적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조화 흐름이 나타났으며, 생태근대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적 기회라는 정당화를 통해 이념적 절충이 가능. 기후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2021년 이후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의 다변화를 통해 언론의 역할 변화가 모색됨. 이에 반해 에너지 논쟁의 심화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기도 함. IPCC의 정치적 중립성 지향에도 불구하고 IPCC는 원전을 지지하는 이념적 언론에서 도구적으로 활용.

(2) 김지영 - 담론이 뿌리내린 세상을 드러내는 일에 관하여: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본 예술 담론의 물질성

① 연구 배경

비누 상자는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앤디 워홀이 복제한 비누 상자(이하 브릴로 박스)는 미술관에 전시된다. 이 까닭은 무엇일까? Danto(1964)는 예술 작품은 예술계(Art world)의 이론과 역사를 바탕으로 탄생한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워홀의 작품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예술계의 이론과 역사가 워홀의 비누 상자를 ‘실재적 세계’에서 ‘해석된 것들의 세계’인 예술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Danto, 1981).

그렇다면 예술 작품이 된 브릴로 박스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단토에 따르면, 예술작품으로서 ‘브릴로 상자’는 “세계를 보는 방식을 외화하며, 문화적 시대의 내부를 드러내고, 우리의 제왕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거울”로 기능한다(ibid: 424). 다시 말해,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1960년대의 대량생산과 소비주의라는 시대정신을 가시적 형태로 구현하고, 상품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당대의 문화적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예술 작품의 역할을 한 것이다.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예술계의 담론적 해석을 통해 단순한 상자의 복제를 넘어 시대를 반영하는 담론적 실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 작품이 담론적 실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술계는 이론과 해석이 작동하는 담론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예술계 담론의 장은 미술관이나 예술 작품이라는 물질적인 교차 지점을 지닌다.

다양한 물질을 바탕으로 담론이 가시화되며, 가시화된 것들은 때때로 지도의 출발점이나 도착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텍스트마이닝을 사용하여 그 안의 업힘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실천의 장을 보다 다층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기후위기나 인류세 등 환경 담론이 꽤나 오랜기간 동안 예술계 주요 담론의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고 환경 담론의 초학제적 특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술계 환경 담론의 세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삶과의 업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② 이론

이 연구는 Latour(2005)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주요 이론으로 활용하나, 사회-물질적 접근의 이론들의 관점을 폭넓게 고려한다. ANT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어떻게’ 움직여 결합된 모습을 보이는 지에 주목한다(Latour, 2005). 기존의 네트워크 연구들이 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행위성(agency)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ANT는 이 행위성을 단순히 인간 행위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까지 확대한다(Latour 1999; Latour, 2005). 그리고 동등한 행위성을 지닌 수많은 물질들이 네트워크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네트워크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가령 전통적 네트워크 분석의 관점에서 예술계 환경 담론은 작가 개인의 일이거나, 큐레이터, 비평가 등 인간 행위자 사이에서 나타난 전시 활동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NT 관점에서 예술계 환경 담론은 예술가나 비평가 같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재료, 전시 공간, 기후 데이터 등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ANT 관점에서 예술적 작품에 드러난 담론적 실천은 작가의 의도나 큐레이터의 기획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인간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ANT 분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 관점에서 드러내기 어려웠던 물질적 차원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예술계 환경 담론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③ 연구 방법

이 연구에는 중요한 두가지 질문이 있다. 첫번째 질문은 ‘미디어가 재현한 예술계 환경 담론에는 어떤 행위자들이 얽혀있는가?’이다. 두번째 질문은 ‘재현된 행위자들의 배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적군의 언어’ 전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전시 구성이나 예술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했을 때 인류세나 생태 등 환경 담론이 드러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2025년 7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총 24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는데, 전시 홍보 외 다른 내용이 없는 기사 14건을 제외하고 10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진행하였다. 이후 Google Colab의 Python 환경에서 텍스트 전처리 작업과 같은 기초 작업을 거친 후 빈도분석,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④ 연구 결과

전체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키워드로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100회), 미술관(87회), 전시(73회), 아트선재센터(50회), 작품(44회), 인간(43회), 조각(41회), 인류(33회), 건물, 공간, 세계(29회), 존재(29회)가 나타났다. 인공지능(19회), 관객(16회), 기계(14회), 흙더미(14회), 호모사피엔스(14회) 또한 등장했다. 이는 네트워크에 인간 행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등장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연결관계는 다음과 같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ANT를 적용한 담론분석이 물질적 차원을 포착하는 유효한 도구임을 입증했다.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인간 행위자(작가, 관객 등)와 비인간 행위자(미술관, 조각, 흙더미, 공간 등)의 중심성과 매개성은 환경 담론이 단순히 인간 중심의 언어적 구성물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의 관계적 배치를 통해 작동하는 복합체임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 담론의 초학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환경 담론의 다층적 실천을 포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술계 환경 담론 연구가 텍스트 분석을 넘어 물질적 관계성의 추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연구자들이 이를 통해 환경 담론이 실제 삶과 얽히는 구체적 지점들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는 단일 전시의 한정된 기사만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예술계 환경 담론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표본이 작으며, 단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담론의 변화나 지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는 미디어가 재현한 행위자이므로 실재하는 모든 행위자를 파악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동(affect)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면담, 참여관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적 함의

삶과 얽히지 않는 담론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된 수많은 텍스트에서 '환경 담론'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결과값에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존재', '인류', '호모사피엔스', '흙더미' 등 우회적인 키워드를 통해 가늠될 뿐이다. 예술계 담론이 이처럼 은유적이고 전체적으로 작동하며 기존 담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계 자체나 대중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경 담론의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입 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미술관의 높은 중심성과 전시의 매개적 역할은 문화예술 공간이 환경 담론의 중요한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공공 미술관의 환경 주제 전시 지원, 시민 참여형 생태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예술-과학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흙더미'와 같은 물질의 행위성을 고려할 때, 전시 공간에 실제 생태적 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적 시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미래세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Danto, A. (1964). The artworld. *The journal of philosophy*, 61(19), 571-584.
- Danto, A. C. (1981).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a philosophy of art*. Harvard University Press. [역: Danto, A. C. 『일상적인 것의 변용 : 예술철학, 파주: 한길사, 2008, 296-297
- Latour, B. (1999). On recalling ANT. *The Sociological Review*, 47(1_suppl), 15-25.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분석기사

- "전시장 아닌 예술 현장 그 자체"...기괴하고 낯선 '적군의 언어'展, 아시아 경제, 2025년 9월 2일
- 인류 멸망 후의 미술관이란 이런 것...폐허가 된 아트선재, 무슨 일?, 한국경제, 2025년 9월 2일
- SF영화 세트장인가?...AI가 휩쓸고 간 자리, 미술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한국경제, 2025년 9월 4일
- 끝나버린 세계의 잔해 속에서 생존의 의미를 찾다, 세계일보, 2025년 9월 9일
- 비행선 폭발하고 흙 쏟아지고... 미술관에 멸망이 들어왔다, 한국일보, 2025년 9월 10일
- "폐허가 된 듯한 미술관...흙언덕 발자국 하나도 다 계획했죠", 동아일보, 2025년 9월 14일
- "발자국부터 햇빛까지 컴퓨팅... 외계인의 시선으로 상상했죠", 동아일보, 2025년 9월 15일
- 우리가 알던 미술관이 사라졌다...그 빈 자리에서 보는 전시는?, 경향신문, 2025년 9월 23일

- 폐허가 된 미술관 ... AI가 불러올 인류 종말의 풍경을 비추다, 매일경제, 2025년 9월 26일
- 외계인의 시선에서 미술관을 본다면? [영감 한 스푼], 동아일보, 2025년 10월 17일

(3) 김채미 - 발전노동자의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운동

① 연구 배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탈석탄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곳 노동자들의 일터는 단계적 폐쇄를 앞둔 상황에 놓여 있다.

환경담론연구회는 다양한 환경 쟁점을 담론 분석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며, 비판적 담론이론부터 텍스트 마이닝까지 여러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임의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 동일한 환경 문제라도 화자와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그 이해 방식이 달라짐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중대한 담론 역시,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정부나 환경단체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때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발전노동자 총파업 현장 등을 방문하며, 그들의 서사가 우리의 통념과 다르며 사용하는 언어 또한 상이함을 체감했고,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절감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환경 정책에 저항하며 ‘일자리 대 환경’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간주된다(Rätzl & Uzzell, 2011). 그러나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때로 목적을 재설정해 환경 의제를 활동 영역으로 통합하거나(Snell & Fairbrother, 2010), 작업 장을 넘어 공적 영역의 환경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삼는 사례도 존재한다(Mason & Morter, 1998).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노동과 환경의 대립 및 통합 현상이 동시에 관찰된다(박태주·이정희, 2022). 한 예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고용 보장을 전제로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이태성, 2022). 이들은 단순한 탈석탄을 넘어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통념과 구별되는 발전노동자의 목소리가 ‘공공재생에너지’라는 의제를 매개로 에너지 전환 담론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② 이론

이 연구는 발전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가 단순한 환경주의로의 이념적 전향이 아니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문제의식과 시대적 과제가 결합하며 형성된 독자적 논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 환경주의(worker environmentalism)’ 및 ‘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노동운동의 범주를 여성,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여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한 형태이다(Waterman, 1991). 노동과 자연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동시에 억압받는다라는 유사성을 공유한다(김상현, 2023). 이 때문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자 환경주의’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경험과 인식이 ‘공공재생에너지’ 의제 수용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 이론의 프레임 이론(frame theory)을 핵심 분석틀로 삼았다. 발전 노동자들이 특정 사회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여 동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Taylor, 2000).

③ 연구 방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 의제를 수용하는 과정의 동학과 내면적 의미 구조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기 위해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이들과 연대해 온 환경단체 활동가이다.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이었다. 면접은 ‘노동운동 참여 계기’, ‘환경문제 인식 변화’, ‘공공재생에너지 의제 수용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했다. 모든 면접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 후 전사했다. 자료 분석은 Glaser와 Strauss(1965)의 근거이론 절차를 원용하는 한편, 사회운동 이론의 프레임 분석 방법론, 특히 Taylor(2000)의 적용 방식에 주목했다.

먼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초기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했다. 이후 Taylor(2000)의 이론을 참조하여, 이 범주들이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특정 상황을 ‘불의(injustice)’로 인식하게 하고 원인을 특정 대상에 귀속시키는 ‘진단적 프레임(diagnostic frame)’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했다. 다음으로 범주 간 관계를 분석해 핵심 범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축 코딩(axial coding)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의제 채택’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했다.

④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공공재생에너지’ 의제 수용 과정을, 노동자들이 경험한 두 개의 상이한 불의 인식이 하나의 통합적 마스터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역동적 의미 구성 과정으로 파악했다. 첫째, 공공에 의한 노동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의 프레임이 존재한다. 이는 시장 중심 정책을 사회적 불의로 진단하고 공공의 책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핵심 해석 틀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과 공공 주도 전환 요구의 근간이 되었다. 둘째, 폭염이나 폭우 같은 기후 재난의 직접적 체험은 기후위기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의로 인식하게 하는 새로운 진단적 프레임으로 구성했다. 초기에는 이 두 프레임이 일자리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은 상황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주체성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불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연결하고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적 마스터 프레임으로 부상했다. 이 프레임은 노동자들이 중시해온 ‘충고용 보장’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와 결합시켰다. 이는 노동운동이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고유한 맥락과 언어로 재해석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동자 환경주의’ 및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⑤ 연구의 함의

(1) 학술적 함의

기존의 국내 에너지 전환 연구는 정책 중심이었으며 노동자의 시각을 깊이 다루지 못했다.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나 ‘노동자 환경주의’ 같은 개념은 국외와 달리 국내 학계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조합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노동조합의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을 학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충청남도는 기금 마련을 언급하고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LNG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지역과 노동자 관련 정책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현, 2023,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노동자 환경주의’의 탐색, *경제와 사회*, 27(2), 7-61.
 박태주·이정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총연맹연구원, 2022.
 이태성, 202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 *일터*, 221, 14-16.

Glaser, B. G., & Strauss, A. L., 1965, Discovery of Substantive Theory: A Basic Strategy Underlying Qualitative Research,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6), 5 - 12.

Mason, M., & Morter, N., 1998, Trade unions as environmental actors: The UK 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Capitalism Nature Socialism*, 9(2), 3 - 34.

Rätzl, N., & Uzzell, D., 2011, Trade unions and climate change: The jobs versus environment dilemma,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1(4), 1215-1223.

Snell, D., & Fairbrother, P., 2010, Unions as environmental actor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6(3), 411 - 424.

Taylor, D. E., 2000, The Rise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Paradigm: Injustice Fram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Discours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3(4), 508 - 580.

Waterman, P., 1991, Social-Movement Unionism: A New Model for a New World, *Working Paper Series*, 110.

(1) 박유정 - “열린 문, 닫힌 인식”: 한국의 냉방 관행과 에너지 인식에 관한 미디어 담론
① 연구 배경



<그림 1> 한국 길거리 개문냉방 (출처: 연합뉴스)

개문냉방(開門冷房)에 대한 논의는 환경담론연구회 모임을 시작하며,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공부하는 우리조차도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인 현상으로 무엇이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개문냉방(문 열고 냉방)’은 문자 그대로 영업 공간의 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이며, 한국 여름철 풍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행위는 영업 경쟁과 소비문화, 제도적 조건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에너지 공급 구조가 취약한 한국에서 개문냉방은 에너지 절 문제를 약 넘어,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낭비가 어떤 가치와 규범 속에서 이행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실천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언론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담론 생산과 통제자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의 공식적 대변자인 언론매체이며(김지혜, 2018), 그 중에서도 미디어 담론은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이인희&황경화, 2013). Entman(1993)이 밝혔듯, 미디어 보도는 사회 현상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요소를 강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기에 이 연구에서도 담론 분석을 위해 미디어 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② 이론

개문냉방에 대한 언론 담론을 Fairclough(1995)의 이론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Fairclough(1995)의 담론 분석의 3가지 차원

Fairclough는 담론을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 그는 담론을 ‘텍스트(Text) -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 -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가지 상호 연계된 차원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해 언어와 권력,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텍스트(Text)는 실제 언어 사용의 층위로, 단어 선택, 문장 구성, 은유, 프레임 등 언어적 전략을 통해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텍스트 수준의 분석은 언론 보도에서 개문냉방이 어떤 언어로 묘사되고, ‘문제’ 혹은 ‘생존 전략’으로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드러낸다.

둘째,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은 텍스트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담론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핀다. 이는 언론이 반복적으로 어떤 내러티브를 재현하는지, 그리고 특정 관점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담론적 실천은 단순히 언어를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된 의미를 반복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셋째,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은 텍스트와 담론이 사회 구조 및 권력 관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담론이 특정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거나, 기존의 권력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③ 연구 방법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적용하여 개문냉방을 둘러싼 언론 보도 담론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기사 중 ‘개문냉방’을 주요 키워드로 포함한 보도로, 빅카인즈(BigKinds)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2018년 이전의 일부 기사들은 빅카인즈에서 제공되지 않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54편으로, 중복 기사와 단순 행사홍보 등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기사는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기사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코딩(iterative coding)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이론적 배경에 따라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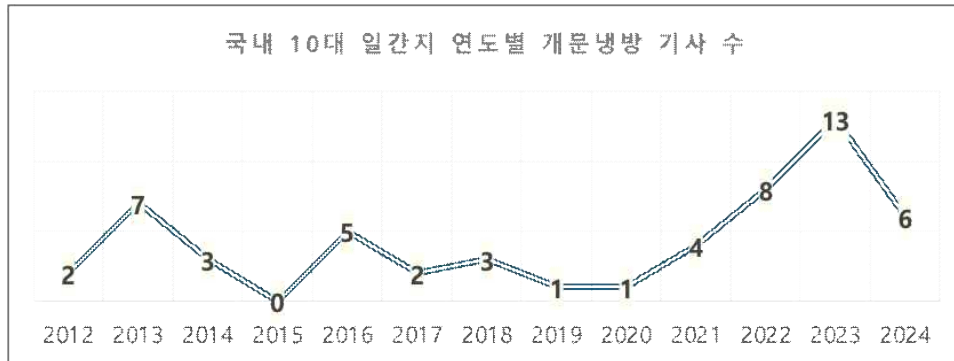
1. 텍스트 분석 단계: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된 어휘, 표현, 은유, 프레임 등을 검토하여 개문냉방이 어떤 언어적 전략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2. 담론적 실천 분석 단계: 뉴스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특정 내러티브(예: 상인 생존 논리, 규제 미비, 캠페인 중심 대응 등)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살폈다.

3. 사회적 실천 분석 단계: 언론 보도가 에너지 절약, 경제적 생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담론적 위치를 어떻게 구성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 의미를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④ 연구 결과

기사 추출 결과, 연도별 기사 수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났다. 2023년에 기사 수가 많은 이유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상업용 전기요금과 개문냉방에 대한 논의도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 결과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담론분석 결과 요약

분석 차원	주요 발견	핵심 내용 요약
텍스트 차원	경제적 생존 프레임의 우세	언론은 '생존권', '손님', '불가피한 선택' 등 상인 중심의 어휘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냉방비 폭탄', '전력량 증가' 등 반복적 표현이 사용되어 에너지 낭비보다는 비용 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규제의 비효과성 부각	단속 실패,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면서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개인적 한계로 문제를 환원하였다.
	협소한 맥락	해외 사례나 기후위기 논의보다는 국내 전기요금 문제가 집중하여 보도의 시야가 제한되었다.
담론적 실천 차원	규제 무력화의 반복	규제 미이행, 형식적 캠페인 등을 매년 유사한 논조로 보도하며, 문제를 일시적 현상으로 재생산하였다.
	담론의 루틴화	유사한 제목과 내용이 반복되어 개문냉방이 '해결되지 않는 상시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택적 내러티브 강화	정부나 제도의 책임보다 상인과 소비자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국내 중심의 내러티브가 재생산 되었다..
사회적 실천 차원	낭비적 에너지 사용의 만연함	상인의 생존 논리가 낭비적 에너지 사용이 일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절약 담론이 약화되었다.
	비효과적 규제	국가/지방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은 수동적으로 규제에 임하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구조적 취약성 주변화	수입 의존성과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와 같은 근본적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 비교적 적게 다루어졌다.

⑤ 연구의 함의

이번 연구를 통해 개문냉방 문제를 단순한 에너지 낭비 행태로 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단속이나 캠페인만으로는 개문냉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난다.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언론은 이러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개문냉방을 하나의 ‘영업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그 결과, 에너지 낭비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조건이 맞물린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전기를 단순한 개인의 소비재가 아닌, 모두가 함께 관리해야 할 집합적 자원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업용 냉방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함께 엮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에너지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환경사회학회(ISESEA-10) 포스터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올해 초 아이디어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환경담론연구회 모임을 통해 발전시키게 되었다. 모임을 진행하며 타인의 연구임에도 나의 연구인 것처럼 고민하고, 토론한 시간들 덕분에 작지만 해외 학회의 포스터 발표 세션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학회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개문냉방 사례를 국제적인 시선에서 비교하고,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지역 상권의 에너지 사용 행태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연구 방향과 분석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상가 점주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문냉방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고 정당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론 담론 속 의미가 현실의 인식과 어떤 지점을 공유하는지 살펴보고, 담론과 실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5) 박정현 -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적 고찰(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중심으로)

① 연구 배경

기후위기,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등 환경문제가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통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주제이다. 특히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환경 담론이 생성·순환되는 핵심 공간으로,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부상하였다.

‘환경담론연구회’는 환경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생산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협력적 학습모임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회 내에서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의 최신 경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텍스트마이닝과 상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그 타당성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텍스트마이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의 재현성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분석하며, ③ 나아가 향후 연구회 차원에서 방법론적 논의를 심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론

(1)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발전

환경 커뮤니케이션(Environmental Communication)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문제의 인식, 정보 교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Cox, 2007; Flor, 2004).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의 구성 과정, 즉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토론되는가에 주목한다(Hansen, 2018). 국제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환경정치·담론·미디어 연구가 결합되며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다. IAMCR(국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회)의 Environment, Science & Risk Communication 섹션(1988년 창설)과

COCE(Conference on Communication and Environment, 1991년 출범), 그리고 2007년 창간된 학술지 Environmental Communication은 이 흐름을 제도화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도 및 대중인식 연구가 증가했으나, 이론적·방법론적 편중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채영길, 2019).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 기반의 담론 연구(서현정·윤정섭, 2022; 박세정, 2024)가 활발해지면서, 정성·정량 접근이 융합되는 디지털 환경담론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2) 텍스트마이닝의 개념과 의의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를 정형화하여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수집 - 전처리 - 특징추출 - 패턴분석’의 과정을 거친다(Miner et al., 2012). 이 방법은 정성적 내용 분석이 가진 주관성을 보완하고, 대규모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예컨대 박정현·윤순진(2022)은 2020년 여름 기후위기 관련 네이버 뉴스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해 ‘이상기후 현상의 단기적 보도 편중’과 ‘중앙정부 중심의 담론 구조’를 밝혀냈다. 이는 텍스트마이닝이 환경 담론의 의미 생산과 사회적 구성 과정을 탐구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준다.

③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상용 텍스트마이닝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문헌기반 연구이다. 국내외 선행연구, 각 소프트웨어 공식 자료 및 학술적 평가 보고서를 수집·분석하여 다음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의 도구를 기능·언어지원·분석 투명성·연구적 활용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다.

각 범주의 도구를 기능·언어지원·분석 투명성·연구적 활용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다.

범주	주요 예시 도구	주요 기능 및 특징
① 국내 상용 텍스트마이닝	Textom	포털 뉴스·SNS 데이터 수집, 단어빈도·연관어·감성분석 등 자동 수행. 한국어 분석에 특화.
② 해외 소셜 리스닝	Brandwatch, Meltwater	실시간 소셜데이터 모니터링 및 감성·트렌드 분석. 알고리즘 비공개로 검증 어려움.
③ 질적 분석(QDA)	NVivo, Atlas.ti	정성적 코딩과 주제별 분류 지원. 자동화는 제한적이나 체계적 관리 가능.
④ 사전 기반 분석	LIWC, WordStat	언어·심리적 범주 사전을 활용한 정량분석. 투명하지만 신조어 처리 한계.
⑤ API 기반 NLP 서비스	Google NLP, IBM Watson	AI 기반 감성·주제 자동 분석. 최신 기술 활용 가능하나 블랙박스 문제 존재.

④ 연구 결과

(1) 상용 텍스트마이닝 도구의 확산

국내에서는 텍스트롬(Textom)이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고리즘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의 재현성과 세부 조정 가능성이 제한된다.

해외의 Brandwatch나 Meltwater는 대규모 소셜 데이터의 실시간 감성분석을 지원하지만, Hayes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 분류의 정확도가 사람 코딩보다 낮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2) 질적·정량적 접근의 융합

NVivo나 Atlas.ti는 연구자의 주도적 코딩을 지원해 정성적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최근에는 단어빈도·워드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정량 분석과 병행이 가능하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텍스트롬(데이터 수집) + NVivo(맥락 분석) 같은 혼합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3) 투명성과 해석의 균형

LIWC와 같은 사전 기반 도구는 분석 과정이 투명하고 재현 가능하지만,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신조어나 비문법적 표현을 처리하지 못한다. 반면 Google NLP API 등은 기계학습 기반으로 높은 처리속도와 범용성을 보이지만, 내부 모델이 공개되지 않아 해석의 근거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자들은 상용도구를 데이터 탐색용으로 활용하고, 세부분석은 Python이나 R로 보완하는 방식의 혼합모델을 채택하는 추세다.

⑤ 연구의 함의

(1) 학술적 함의

본 연구는 상용 텍스트마이닝 도구가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데이터 접근성과 분석 효율성을 높이는 축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비공개성과 언어적 제약은 여전히 분석의 투명성·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용도구의 결과를 오픈소스 코드 기반 분석(R, Python)과 교차검증하고, 한국어 환경에 적합한 분석사전 구축이 필요하다.

(2) 정책적 함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텍스트마이닝은 대중의 환경인식 변화와 정책 수용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환경부나 지방정부는 뉴스·SNS 데이터를 분석해 여론의 감성 흐름을 측정하고, 보다 수용성 높은 기후위기 메시지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환경담론연구회 차원의 함의

환경담론연구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이 환경문제를 언어·담론·사회구조의 교차점에서 탐구하는 공동체다. 본 연구는 연구회 내에서 텍스트마이닝을 공통 분석도구로 정착시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회의 담론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적 환경 담론 코퍼스 구축을 추진할 수 있고, 정성적 담론 해석과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융합형 연구모델을 내부 공동연구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향후 학술대회·정책제안 등 외부 발신 시 데이터 기반 논의의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환경담론연구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담론연구의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법론적 지형을 재조명하며, 상용 텍스트마이닝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도구의 편의성은 연구 접근성을 넓히지만, 분석의 투명성과 해석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의 비판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환경담론연구회는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를 확장하여, 데이터 기반 담론분석의 학제적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그러한 집단적 성찰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

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박정현, 윤순진, 2022, “기후위기 관련 인터넷기사 토픽모델링 분석: 2020년 여름 이상기후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279 - 300, <https://doi.org/10.22418/JSS.2022.12.61.3.279>

박세정, 2024,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기후변화 회의론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 메시지 구조 분석”, 한국데이터분석학회지, 26(5), 1395 - 1405

서현정, 윤정섭, 202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29 - 45

채영길, 2019, “국내 환경커뮤니케이션(Environmental Communication)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97, 119 - 152

2. 국외 문헌

Hansen, A., 1991, “The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Media, Culture & Society, 13(4), 443 - 458, <https://doi.org/10.1177/016344391013004002>

Hayes, J., Britt, B., Evans, W., Rush, S., Towery, N., & Adamson, A., 2020, “Can Social Media Listening Platforms’ Artificial Intelligence Be Trusted? Examining the Accuracy of Crimson Hexagon’s (Now Brandwatch Consumer Research’s) AI-Driven Analyses”, Journal of Advertising, 50(1), 1 - 11, <https://doi.org/10.1080/00913367.2020.1809576>

(6) 이태성

① 연구 배경

기본소득과 이익공유제는 정책적 맥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기저에 둔 재분배 정책인 반면 이익공유제는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조건성을 갖는 이익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의 개념이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두 담론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의 차원에 한정하여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아직 한국의 경우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전기의 시장 판매가격에 비해 충분히 낮지 않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원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는 수익이 나지 않아, 분배할 초과 수익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이 담론간 연합을 비판적담론분석(CDA)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담론 연합의 순간과 방식, 함의와 그 한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② 이론

담론은 어떤 주제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뭉쳐진 언어의 의미 단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담론은 정치 또는 맥락안에 존재하며, 특정 집단은 주류 담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투쟁하기도 한다. 이때 주류 담론은 한 사회 내 보편적 인식으로서 자리하고 있어, 그 담론의 작용을 인식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과 해체를 위해 도입된 연구의 방법이 바로 CDA이다. CDA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페어클로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자료수집, 텍스트와 맥락 분석, 사회 구조와 의 관계 분석, 반성 및 대안 제시라는 일련의 절차를 제안하였다(페어클로, 2010).

이번 연구에서 CDA로 살펴보고자 하는 담론간 연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기본소득간 담론의 연

합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주민 참여와 투자, 에너지 커먼즈 기반의 기본소득”이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피해 또는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주민 참여와 투자는 지역 주민이 발전 사업에 대한 지분을 구입해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투자수익 배분이라는 맥락에서의 논의이다. 이 둘은 기존 이익공유제 논의의 맥락에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모델과도 일치하였다(World bank, 2024, 정성삼&이승문, 2019). 그러나 태양과 바람이 모두의 것이라는 커먼즈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에너지 커먼즈 기반의 기본소득 논의 역시 존재했다(홍덕화, 2024).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이익공유 맥락에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담론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기본소득은 보편성, 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한국에서 풍력연금, 태양연금, 기본소득 등의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World Bank, 2020).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는 어떻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였으며,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주로 언급된 것은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의 판매수익, 현금발행, 과세 등이 주요하였다. 다만, 아직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신문기사 보도 수 추이를 분석하여, 담론 연합의 순간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빅카인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이익공유제”를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여, 최소 두개 이상의 키워드 언급이 증가한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시점에서의 사실과 칼럼을 확인하여 담론이 서로 평행하게 흐르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선별하여, 실제 연합이 이루어진 순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담론 연합의 순간을 확인 한 후, 기사에서 등장하는 행위자와 사건을 파악하고 그 행위자와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정책보고서,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④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발견한 담론 연합의 순간은 2021년으로,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 요구가 거세졌다. 주로 공유자원을 활용하거나 목적세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과 울산시장은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활용한 기본소득 추진을 발표하였다.

담론 연합을 주도하는 주요행위자는 기본소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신안군수, 영광군수, 기본소득당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투자로서 이익공유제를 강화해야한다는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고, 감사원은 신안군의 이익공유제 모델에 대한 개선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⑤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이익공유제와 기본소득 담론이 결합하는 과정을 정치·경제적 연합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두 제도적 담론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이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 설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분배정책의 확장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득 재분배의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융 모델,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펀드 조성,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이 상호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과 풀씨연구회 모임에서 시작하여, 지난 10월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발표를 수행하여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추후 연구를 발전시켜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기도 하다. 연구회 차원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보다 다듬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Norman Fairclough.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27084306>

World Bank. (2024). *Benefit Sharing in World Bank Operations - Prioritizing Development for Local Communities*. In *Benefit Sharing in World Bank Operations - Prioritizing Development for Local Communities*.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doi.org/10.1596/41675>

정성삼, & 이승문. (2019).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 연구.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101040000&bid=0001&act=view&list_no=81928&nPage=1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67

(7) 조유진 -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원자력발전 담론 재구성: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언론 사설 분석

① 연구 배경

원자력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된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윤리적 한계가 존재한다(김수진, 2018). OECD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도 원자력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되지만, 정치적·사회적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IPCC, 2016). 이는 원자력이 단순한 기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과 깊이 연결된 논쟁적인 사안임을 의미한다. 특히, 원자력 기술은 그 활용 방식에 따라 문명의 번영을 가져올 수도,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비유되곤 한다(윤순진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원자력 정책은 여전히 복잡한 기술적·사회적·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과 안정성 논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을 주로 언론에 의존하게 된다(송해룡 & 김원제, 2013; 한동섭 & 김형일, 2011; 이화연 & 윤순진, 2013). 이 때 언론은 시민과 정책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며,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론장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윤순진, 2016). 그러나 언론 보도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사실과 같은 여론 형성의 도구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가치 체계를 반영하기도 한다. 사실은 언론사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려 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채영택 et al., 2012; 심홍식, 2013; 최영해, 2019). 따라서 사실 분석을 통해 원자력 담론의 구조와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자력 담론이 형성되고 변화해온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천을 진단하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 연구질문 1: 신문 사설에서 재창조된 원자력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질문 2: 원자력 사회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② 이론

현대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적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적 변화가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권혁주, 2016). 1961년 박정희 정부를 기점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발전국가 체제 아래 정부는 특정 산업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였고, 금융, 산업, 노동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자원을 집중시켰다(안병영 & 정무권, 2007). 이러한 경제 제일주의적 논리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은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하며, 각 정부는 고유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을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회적 담론과 언론 보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자력 담론의 형성과 변화는 정책적 맥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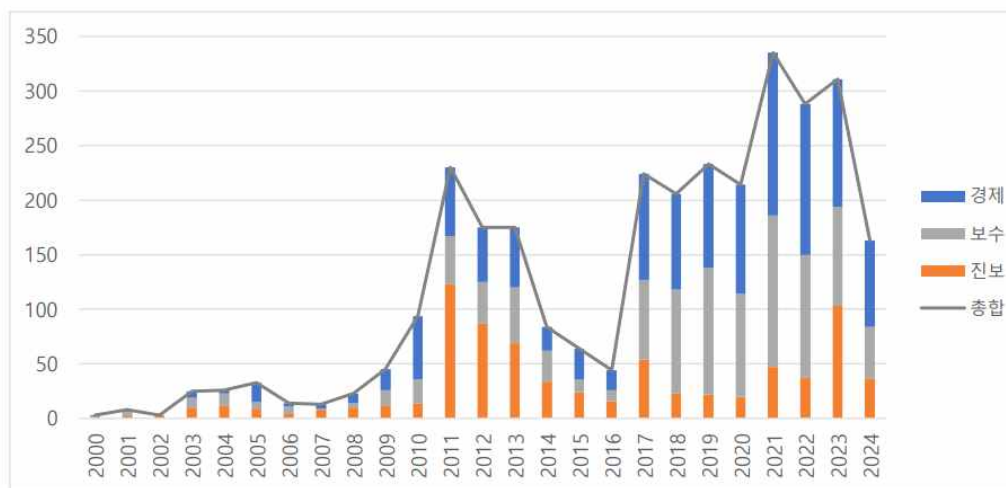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언론의 보도가 정확한 핵심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벗어나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론과 다르게 언론인은 특정 정치 이념, 혹은 언론 매체 내부, 또는 외부 차원에서 보도에 대한 편향성과 당파성에 영향을 받는다(윤순진, 2016). 따라서 언론보도는 사회 문제나 정책 현황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강조, 경시, 배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Gamson & Modiligani, 1989).

③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플랫폼에서 ‘원자력’, ‘원전’, ‘탈원전’, ‘핵발전’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사설 3,040건을 수집했다. 그리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신문 사설에서 나타난 원자력 담론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TF-IDF와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고, 주요 이슈의 변화를 관심순위지도를 통해 시각화 할 것이다.

④ 연구 결과

[그림 1] 사설 보도 건수 추이



	1 st Keyword	2 nd Keyword	3 rd Keyword	4 th Keyword	5 th Keyword	6 th Keyword	7 th Keyword	8 th Keyword	9 th Keyword	10 th Keyword
Topic-1	한국전력	요금	인상	적자	전기료	가격	공기업	분기	부채	상승
Topic-2	선거	후보	대선	공약	야당	여당	대표	국정	총선	의원
Topic-3	태양광	풍력	금융	재생	투자	신재생	자금	은행	설치	보조금
Topic-4	공론	시민	공개	의견	공사	여론	참여	결론	구성	여부
Topic-5	회의	협력	관계	협정	회담	총리	양국	외교	안보	공동
Topic-6	기관	감사	자원	공공	인사	통상	감사원	위원장	위원	임기
Topic-7	수명	연장	폐쇄	수요	한을	발전소	수급	신규	설계	예비
Topic-8	북한	러시아	위협	공격	미사일	전쟁	안보	사이버	잠수함	테러
Topic-9	업체	부품	비리	납품	원자로	시험	한국전력	직원	대학	점검
Topic-10	반도체	원자로	분야	투자	경쟁력	생태	공장	자동차	해체	붕괴
Topic-11	오염	방류	물길	지진	방사능	방사성	염수	피해	영향	수산물
Topic-12	근본	불안	감동	해결	코로나	해소	노력	관계	태도	선택
Topic-13	단체	환경	시민	과학	과담	주민	운동	가짜	뉴스	사람
Topic-14	수사	검찰	총장	사건	의혹	감사	조각	감사원	비리	청와대
Topic-15	청와대	대표	국정	야당	여당	의원	발언	언론	기자	여야
Topic-16	수주	해외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경쟁	체코	계약	중동	경쟁력
Topic-17	탄소	감축	중립	온실가스	배출	기후	재생	석탄	변화	신재
Topic-18	성장	일자리	소득	개혁	규제	임금	고용	재정	최저	세금
Topic-19	시설	법안	주민	핵연료	폐기물	저장	선정	통과	폐장	부지

		정점 1/4									정점 3									정점 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점 1	Topic 1	1	1	4	11	2	2	9	2	2	7	5	3	4	3	2	10	2	3	1	1	5	4	1	3	3		
	Topic 3	5	3	4	11	12	10	1	10	2	4	5	7	10	13	9	16	7	8	3	3	4	8	6	7	7		
	Topic 7	5	7	4	4	6	6	2	1	2	15	4	2	2	6	5	4	3	2	3	5	8	9	11	10	4		
	Topic 16	5	7	4	11	12	10	6	10	9	1	2	9	12	13	14	8	7	11	9	9	13	18	9	16	2		
	Topic 19	5	1	4	1	1	1	9	2	9	10	7	11	8	18	7	10	4	17	19	17	9	19	16	17	12		
정점 2	Topic 2	5	7	1	4	6	7	9	4	7	10	3	6	9	7	9	10	7	3	6	4	3	2	2	5	1		
	Topic 4	5	7	4	6	3	3	9	10	6	5	11	9	11	8	6	2	7	1	7	7	9	10	14	14	13		
	Topic 6	1	3	4	6	6	7	2	10	7	5	11	12	7	5	9	5	4	5	2	2	1	4	3	4	4		
	Topic 14	5	7	4	11	12	10	9	10	9	15	11	15	17	8	14	16	15	18	15	17	2	1	4	8	10		
	Topic 15	5	7	4	11	12	10	9	10	9	7	7	15	17	13	12	10	15	6	11	7	17	10	9	8	18		
정점 3	Topic 5	5	7	1	6	4	3	2	4	2	3	1	4	3	2	2	1	4	7	5	10	12	6	4	2	9		
	Topic 8	5	3	4	11	6	10	2	4	9	10	11	15	12	11	4	7	7	14	14	15	17	15	7	10	10		
	Topic 9	5	3	4	11	12	10	9	4	9	7	16	5	1	1	1	8	7	9	9	14	19	13	16	18	15		
정점 4	Topic 10	5	7	4	6	12	10	6	10	9	15	9	15	14	18	18	10	15	15	16	12	9	12	12	10	13		
	Topic 11	1	7	4	2	6	10	9	4	9	10	11	1	5	4	12	16	1	15	18	10	7	6	18	1	7		
	Topic 12	1	7	1	6	6	10	9	10	9	10	18	14	14	10	14	10	7	18	16	17	13	15	19	19	18		
	Topic 13	5	7	4	2	4	3	6	10	9	15	16	12	6	11	7	5	7	11	13	13	13	13	14	10	16		
	Topic 17	5	7	4	11	12	10	9	4	1	2	18	7	17	16	18	3	15	9	12	15	6	3	8	6	4		
	Topic 18	5	7	4	11	12	7	9	10	9	15	9	15	14	16	17	16	15	11	7	5	13	15	12	14	17		

[표 12] 관심순위지도 주목 순위

순위	쟁점	토픽 #	토픽
1	쟁점 1	Topic 1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과 공기업의 부채 문제 해결 논의
2	쟁점 1	Topic 19	핵연료 폐기물 저장 시설과 부지 선정 문제 논의
2	쟁점 4	Topic 11	방사능 오염 물질 방류와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피해
4	쟁점 3	Topic 9	부품 납품 비리와 원자로 시험 과정 점검 강화
4	쟁점 3	Topic 5	양국 간 외교 협력과 공동 안보 협정 체결 논의
6	쟁점 2	Topic 2	대선 후보의 공약과 여야 간 정치적 갈등 지속
6	쟁점 4	Topic 12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과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6	쟁점 2	Topic 6	공공기관의 자원 관리 감사와 인사 운영 개선 검토
9	쟁점 1	Topic 3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투자와 보조금 지원 확대
9	쟁점 1	Topic 7	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설계 및 전력 수요 조정
9	쟁점 1	Topic 16	중동 지역 해외 수출 제약과 한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9	쟁점 2	Topic 4	시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 결정 진행
9	쟁점 2	Topic 14	검찰의 주요 사건 및 의혹 조사와 감사원의 비리 수사 병행
9	쟁점 4	Topic 17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15	쟁점 2	Topic 15	청와대와 여야 간 국정 방향 논의와 언론 발언 논란
15	쟁점 3	Topic 8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및 미사일 위협 증가
15	쟁점 4	Topic 10	반도체와 원자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
15	쟁점 4	Topic 13	환경 단체의 주민 운동 및 가짜 뉴스 대응 활동
15	쟁점 4	Topic 18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 목표의 규제 개혁 및 임금 정책 논의

연구 결과, 원자력 담론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안보적,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다양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며 이슈의 복잡성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담론의 중심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 안정과 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및 에너지 효율화가 주목받았다. 환경 재난에 대한 관리와 논의가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2010년에서 2016년에는 국제적 안보와 외교적 협력이 원자력 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며, 국내 부패에 대한 균형이 요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은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만들었다. 2017년 이후에는 정치적 갈등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대선 공약과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탄소 감축 목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문 사설은 이러한 시기적 변화 속에서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원자력 정보를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방향이 양분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객관적 보도를 중시하는 기사와 달리, 사설은 신문사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중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⑤ 연구의 함의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 사설 분석을 통해 개관적 보도와 주관적 보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언론 보도에서 정보의 중립성과 편향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 갈등과 정책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모형을 활용해 각 언론사의 주장을 구조함으로써 언론이 균형적 프레임을 제시하기보다 이념적 가치관과 편견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신문 사설이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 주체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개별적 활동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였다. 따라서 언론은 진영 프레임 강화나 의도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다층적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각심

과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ety*, 95(1), 1-37.
- OECD/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 김수진. (2018). 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139 - 170.
- 심홍식. (2013). 한국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한국학술정보*
- 안병영·정무권 (2007).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한국행정학보*」, 41(3): 1-40.
- 윤순진, 구도완, 김철규, 박재목, 양종희, 오수길, 이시재, 전광희, & 한상진. (2015). *환경사회학: 자연과 사회의 만남 / 한국환경사회학회 위임 (한국환경사회학 ; 3). 한울아카데미 : 한울*
-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ECO*, 20(1), 7-61.
- 최영해. (2019). 대통령의 중점정책 변동 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의 영향관계 분석: 행정수도와 4대강 사업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Retrieved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76631>
- 채영택, & 최외출. (2012). 신문 사설의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247-270.

3. 결론

본 환경담론연구회는 지난 1년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적 담론을 학제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회 구성원들은 비판적 담론분석(CDA),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 텍스트마이닝, 그리고 질적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기후·에너지 담론 지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

주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담론연구회 활동을 통해 확인된 연구회 차원의 발전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학술적/방법론적 정체성 강화

환경담론연구회는 개별 연구 주제의 심화뿐만 아니라, 담론 연구 방법론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 공동체의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학제적 방법론의 융합 및 실증: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비판적 담론분석(CDA), 행위자-연결망 이론(ANT)과 같은 상이한 분석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단일 방법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환경 담론의 다층적 구조와 물질적 실천 영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다.
- 물질적 차원의 담론 분석 가능성 제시: 예술 담론 분석을 통해 ‘미술관’, ‘조각’ 등 비인간 행위자의 중심성을 확인하며, 환경 담론 연구가 단순히 언어적 차원을 넘어 물질적 관계성 추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입증했다.
- 데이터 기반 연구 협력 기반 마련: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고찰하여 연구회 내부에서 텍스트마이닝을 공통 분석 도구로 정착시킬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는 연구회 담론 분석 자료를 장기적 환경 담론 코퍼스로 구축하고, 정성적 해석과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융합형 연구모델을 공동 연구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3.2 연구 주제의 심층적 발전 및 연구자 역량 강화

연구회는 연구자들이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문제의식을 다듬는 협력적 피드백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개별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문제의식의 정교화 및 확장: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기본소득 담론 연합 분석 및 개문냉방 미디어 담론 분

석 연구는 연구회 내 발표와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이 보다 다층적이고 학술적으로 다듬어졌다. 특히 개문냉방 연구는 연구회의 도움으로 해외 학회 포스터 발표에 도전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 사회적 약자의 담론적 주체성 조명: 발전노동자의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운동 연구는 노동조합의 논의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을 넘어, 노동자 환경주의라는 독자적 논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 담론 형성 구조의 비판적 분석: 한국 언론의 기후과학 재현 방식 및 원자력 발전 담론 재구성 연구는 언론의 정보 중립성과 이념적 편향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을 데이터로 입증하며, 사회적 갈등과 정책 담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3 후속 연구 및 연구회 발전 방향

이 연구회의 1년 활동은 환경 담론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향후 환경담론연구회는 축적된 방법론적 역량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먼저, 상용 텍스트마이닝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소스 코드 기반 분석과의 교차 검증 및 한국어 환경에 적합한 분석 사전 구축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를 지속하여 데이터 기반 담론 분석의 학제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문냉방 연구의 후속 계획과 같이, 미디어 담론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가 점주 및 소비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등 현실의 인식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확대하여, 담론이 실제 삶과 얽히는 구체적 지점들을 정밀하게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학술대회, 정책 제안 등 외부 발신 시에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논거를 활용하여 설득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